

종이로 ‘접어’ 보이는 새로운 세계,

“이거 정말 종이로 만든 거 맞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의 헤드카피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종이세계가 펼쳐졌다. (사)한국종이접기협회(대표 노영혜)가 주최하고 토마토 피앤씨(대표 김형만)가 주관한 ‘2003 종이충격전’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종이나라빌딩에서 열렸다. 가자! 마법의 종이세상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행사는 종이나라, 서울앤즈, 톰니소프트, 유니트픽처, 지온디자인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 종이로 ‘접어’ 보일 수 있는 다채롭고 환상적인 종이테마파크를 연출했다.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제작된 곤충을 실제 곤충표본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곤충마을, 벨로시랩터, 티라노사우루스 등 주라기 시대의 경관을 연출한 공룡마을, 실제 비행기의 재원을 바탕으로 종이비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전투비행기 마을, 인터넷 세상에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뿌까, 블루베어가 전시된 캐릭터 마을 등 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색다른 종이테마파크가 관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톱니소프트는 컴퓨터게임과 종이접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에듀 게임(Edu-Game) 'TTGO'를 선보였는데, 캐릭터와 주변사물을 게임중에 동영상으로 접어볼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도 면을 출력하여 종이접기를 가능케 해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일본의 니노미야 박사와 미국의 켄 블랙번과 더불어 세계 종이비행기 3대 작가로 유명한 항공학 박사 이희우 씨의 작품이 전투비행기 마을에 단독 전시되어 관심을 끌었다. 이희우 씨의 전투비행기는 조종면을 조종하면 장거리비행에서 곡예 비행까지 가능해 종이비행기의 새로운 경지를 선보였다.

종이충격전을 관람하던 김종우(12, 리라초등학교 5학년) 군은 “색종이로 비행기나 꽃을 접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종이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워요. 제 키보다 큰 공룡이 정말 종이로 만들었나 싶어 살짝 만져도 봤는걸요. 친구들에게 ‘강추’ 하고 싶은 곳이에요”라며 감탄을 연발했다. 종이나라 기획조정실 최홍순 실장은 “종이는 다른 무엇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인성, 그리고 감성을 되살려주자는 취지에서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전 10만의 사랑을 모아’라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성공하게 된다면 전시회 수익금의 일부를 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전시배경과 계획을 함께 전했다.

‘2003 종이충격전’은 종이테마파크 전시를 비롯하여 종이나라빌딩 4개 층에 공예재료 백화점, 종이박물관, 체험공작실을

함께 구성, 관람자가 공예재료를 구입하고 일부 전시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색체험까지 연계해 전시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만족시킨 우수전시회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전시가 막을 내렸다 해도 그리 아쉬운 일은 없을 듯하다. ‘2003 종이충격전’이 열린 종이나라빌딩 2층에는 종이공예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서울핸즈’가 문을 열고 있으며, 전시를 통해 느낀 ‘충격’은 아니더라도 전시에 소개된 소작품을 만날 수 있어 하루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3층에 마련된 종이박물관에는 종이공예대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이번 전시 못지 않은 관람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종이충격전은 지난 8월 31일로 전시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방학이 끝난 각 학교의 단체관람 요청과 자녀들 학습활용도가 높은 행사라는 입소문이 학부모들로부터 퍼지며 더욱 관심을 끈 행사는 9월 말까지 연장전시를 가졌다.

한편 종이충격전이 출판계에 ‘충격’을 주었다는 소식을 접한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 상임이사진도 지난 9월 4일 전시장을 직접 방문, 관람했다. 이들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종이테마파크를 둘러본 후, ‘출판사업과 연계한 성공적인 이색전시’라는 평가에 공감했다.





“...종이접기 할 줄 아느냐구요? 일본 오리가미(折紙:종이접기)협회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며 종이접기 자격증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색종이와 종이접기 책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종이접기를 할 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미니 인터뷰

(사)한국종이접기협회장 , 도서출판 종이나라 대표 노영혜

노영혜 사장은 앉은 자리에서 색종이로 튜립을 똑딱 만들어 보였다. 색종이를 접는 손끝은 섬세했는데, 네 귀퉁이를 정확히 맞추고 각을 잡는 반듯한 손놀림에 노영혜 사장의 각단진 경영마인드가 엿보였다.

“일본어인 ‘오리가미’가 종이접기 대명사로 서구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이 아쉽습니다. 종이접기 원조는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종이접기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주체국의 자존심을 찾고 그 의미를 펼쳐보고자 종이접기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종이나라 출판사를 만든 것도 그러한 이유의 연장선 상에 있지요.”

한국종이접기협회가 주최한 종이충격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행사다. 장기전시를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했는데, 세종문화회관을 대관한 작년과 달리 올해 종이나라빌딩 전시관을 이용한 것은 그 때문이다. 종이나라빌딩 전시관 장소가 조금 협소한 듯해 고민하기도 했지만, 다채로운 테마파크를 연출하고 관람자들의 동선을 살린다면 외려 맞춤형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시대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문명과 문화는 빠르게 발전했는지 몰라도, 그 이면 많은 후유증이 생겨났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종이충격전은 그 같은 생각 아래 기획된 전시입니다.”

한편 종이나라 출판사에서 출간된 종이접기 책은 매우 다양한데, 많은 출판사에서 종이접기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에도 종이나라의 책은 종이접기 마니아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종이나라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책은 종이접기 100선 시리즈. 각 권마다 열 가지 종이접기를 소개하는 책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당 1백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현재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외국의 책을 주로 번역해 내놓았습니다. 협회를 위한 구색 갖추기 식의 종이접기 책이 아닌, 이제는 우리만의 창의적인 종이접기 책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야기가 담긴 종이접기 책 《붕붕이의 구출작전》을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국 수많은 종이접기 회원과 아이들을 위해 모범이 될 만한 양서를 갖출 것입니다.”

색종이만큼 다양한 사업 아이템으로 출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노영혜 사장. 출판사업과 문화사업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그녀는 단연 ‘빨강 색종이’를 닮은 여자였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종이나라에서 만든 종이접기 책, 재미나는 책

붕붕이의 구출작전

최홍순 글 | 김만식 그림 | 값 8,000원

배가 고파 쓰러진 아기 달팽이를 구하기 위한 꼬마벌 붕붕이의 모험담이 담겨 있는 책. 주인공 꼬마벌과 함께 달팽이, 무당벌레, 잠자리 등 책에 등장하는 갖가지 곤충과 꽃들을 색종이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종이접기 도면도 함께 담겨 있다.



에그~엄마 꼬꼬가 알을 낳았어요!

베크 워드 글 | 새미 스위트 그림 | 송순섭 옮김 | 값 13,000원

동물농장에 봄이 왔다. 닭장 속의 엄마꼬꼬가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알의 수는 하나, 둘, 셋. 엄마꼬꼬의 꼬리를 밀면 책에서 달걀 미니북 세 권이 ‘꼬꼬’ 소리와 함께 떨어진다.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책이다.

